

## ‘사회적 기업’에 주목하라

### ‘상생위한 공동체’ 불교정신과 일치...환경 문화 등 가능성 많아

한국은 지금 IMF 구제금융 당시보다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 자본주의는 투기, 소득분배 불평등 등 자본의 편중된 축적으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않는다. 여기에 세계화로 인한 다국적 기업의 출현과 경제 불특화로 경제위기는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현대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공존이 아닌 공멸의 위기를 겪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 불교계가 ‘사회적 기업’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경제난 해결에 팔 걷어붙인 조계종중앙신도회**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원(이사장 허경만)이 4월 15~16일 ‘위기의 시대, 불교에서 싹트는 사회적 기업’을 주제로 사회적기업을 통해 세계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자는 강연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희망제작소 소기업발전소 안상현

이현수 연구원은 각각 ‘시민사회 영역의 필요성과 사회적 기업의 역할’, ‘국내의 사회적 기업의 사례와 한국에서의 가능성’을 발표했다. 중앙신도회 사회적기업 창업팀 오시환 대표는 ‘불교계의 사회적 기업과 창업 방향’을, 건국대 김재현 교수는 ‘천년 고찰이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에 대해 강연했다.

강사들은 “독점, 대결경쟁구조, 빈부격차, 양극화가 아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존, 화합, 협력, 나눔, 다양성의 가치 창출에 힘써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김재현 교수는 “공동체의 자생력과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 농촌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기업은 블루오션”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수 연구원은 “사회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기업 혁신, 다양성과 구성원의 연대, 본래의 정의를 실현하는 초기기업의 형태가 미래 사회의 원동력”이라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영국의 ‘Green-Works’와 ‘Fifteen restaurant’ 우리나라의 제1호 사회적 기업인 ‘노리단’을 비롯해 ‘아름다운 가게’ 등 다양한 사례와 벤치마킹의 가능성을 소개했다. 안상현 연구원은 “내부적 동력을

이용하는 사회적 기업을 이용해 다양성,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고용시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시환 대표는 “실업인이 120만을 돌파한 상황에서 고급·청년인력·최저층 등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며 “불교계 사회적 기업은 △스님과 재가불자의 역할 분담과 △신도의 조직화 △불교와 생활의 일치 구현으로 재가불자의 역할 창출과 일자리생성을 통한 자생력과 사회공헌의 원동력으로 주목받을 수 있을 것”고 강조했다.

강연 후, 조계종 중앙신도회 이상근 사무총장은 “중앙신도회는 이윤추구와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재가 불자 운동으로 사회적 기업의 모델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태로 식품유통, 공정무역, 문화사업, 환경사업 등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 불교는 나눔의 종교이자 지혜의 종교로 오늘날 경제난의 해답은 불교에 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과 소통을 전제로 한 공존과 상생의 인드라마를 설계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첫발은 희생과 욕심을 버리는 일부터다. 불교는 무소유를 강조한다. 아무 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집착하지 않고 나눔을 실천, 불교의 무소유가 사회적 기업으로 표출되길 기대한다.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Tip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은 ‘영리추구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다. ‘빵을 팔기 위해 고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의 형태는 추구할 가치를 갖고 지역사회의 친환경적 자연생태, 문화, 예술, 교육, 여가를 보장하며 공익의 행복과 건강,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면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자비나눔 실천 불교적 ‘코드’**  
사회적기업은 생존을 위한 경쟁이 아닌 상생을 위한 공동체다. 때문에 불교계에서 ‘사회적 기업’은 자비나눔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불교계 사회적 기업은 ‘행복을 나누며 생명을 존중하고 항상 나와 남을 동시에 위한 배움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 되는 형



‘희망과 나눔의 빛’ 온누리에 부처님오신날불교추진위원회(위원장 지관)는 4월 14일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봉축상징을 점등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55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점등식에서 지관 스님은 축원을 통해 “석가모님 부처님 기피로 경제난을 극복하고 남북이 하나 돼 나눔과 화합으로 사회가 편안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올해 설치된 상징물은 미륵사지탑을 형상화한 것으로 부처님오신날인 다음달 2일까지 밝힐 예정이다. 박재완 기자

법구경  
마음을 잘 다스려  
선과 악을 모두 초월했다면  
깨달은 이다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효로운 마음으로 친한 공양물만들기  
능인향당  
향·조각·공양물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직영매장)

불경금액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복합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및 여, 법구경도 맞출 수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문의 (02)722-1850

기죽년(우년) 삼시선례와 방생법회를 운장대가 있는 운문사에서!  
054)655-1011-011-336-4665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교람소관 운문사

얼레피와 두리안 전문  
보이차, 각종 차음, 생활도자기  
031)882-1357  
전국 직점 배송

## 대정부 합동대책기구 구성키로

### 조계종, 국립공원제도개선 촉구 위한 긴급회의

조계종 중진스님들이 국립공원 제도 개선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대정부 합동대책기구를 구성키로 결의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4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국립공원제도개선 촉구 및 문화유산보전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중앙종무 기관장과 중앙총회 의장단, 교구본사 및 전통사찰 주지스님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지관 스님은 인사말에서 “종단과 사찰 소유지가 국립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정부로부터 대가없이 국민들로부터는 사비·구설만 받아왔다”며 “2중 3중으로 된 정부의 과다규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위해 마련한 자리이니 중지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스님들은 △사찰소유지에 대한 국립공원 명칭 사용 중단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지역 지정 △산림청 국립공원 관리의 실효성 이관 △전통사찰법 폐지 등을 논의했다.

정후 스님(중앙총회 불교규제국가법령제개정특위)은 “정부의 법령규제에 전문인력을 갖추지 못한 종단의 대응이 부실했다”며 “종단이 나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서와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승 스님(국립공원제도개선 법안검토실무소위원장)은 “국립공원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종단을 국가가 이기적 주장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국립공원에 편입된 종단과 사찰 소유지가 국립공원에 편입돼 지난 30년간은 관광휴양개념으로, 최근 10년간은 자연생태계 보전 취지로 관리돼 왔다”며 “이제는 용도를 문화유산보전지역으로 바꿔 문화유산에 걸맞는 대우를 해달라”고 설명했다.

총무부장 원화 스님도 “생태계 보전을 위주로 환경부가 추진 중인 법령들은 문제가 많다”고 동의했다.

기획실장 장적 스님은 “타종교 재산을 국가가 법으로 규제·관리하는 것은 전무후나 오직 불교만 재산관리에 대한 자주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국립공원제도 등 사찰관련 규제에 대한 전면적 제도개선과 법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진스님들이 구성키로 결

의한 합동대책기구를 확대·상시화하는 의견도 있었다.

실천불교승가회 대표 법안 스님은 “자연공원법에 규제받는 전통사찰 뿐만 아니라 도심사찰에 대한 종단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며 국가법령 전반에 대한 종단차원의 검토와 대응을 주장했다.

합동대책기구의 구성은 총무원 집행부가 위임받아 전문가·학자 등으로 쟁크탱크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님들은 사회지도층 및 대국민 설득을 위한 홍보책자를 제작·배포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팔공산 갖바위 케이블카 설치 반대 결의문’과 ‘정조효행유적지 보존 및 효공원 조성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조동섭 기자



선지식을 찾아서

▶14 무어 스님



진각종 총무원장

▶12 혜정 정사



봉원사 신임주지

▶8 일운 스님

## 일천팔십명 이름 회전으로 사찰경제 중흥발원 “업장소멸 법륜대 탄생”

불교박람회(대구 벅스코)에서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께서 너무나 큰 관심과 성원을 주셨습니다.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달마사 청오 합장 -



불사의 어려움을 환탄하지 마시고 화주승의 마음으로 중생구제와 중생보시의 서원을 이루소서

이름명패



실용신특목회(의)기술 전통상감장자득자

제품명: 천불보인법륜대  
재질: 대한민국 상감청자  
높이 110cm  
원통폭 45cm  
밑받침폭 30cm  
무게 25kg

지금 탁자 앞으로 길게 줄을 잇는 법당이 늘어 주목이 되고 있다. 촛대 좌우 법륜대에 전불이 봉안되어 가족과 자신의 이름을 달고 소망을 발원 하느라 눈을 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법륜대 예의 대축제

(달마사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는 분께 드리는 특별한 혜택)

1. 양쪽 1,080명 이름패 세트 (1,500원×1,080명-162만원 상당)를 무상 혜택으로 드립니다.
2. 권선문 (120명×10권)을 드립니다.
3. 숲의 향기 그대로 묻어나는 청다향 코끼리 세트(21만원 상당)를 드립니다.
4. 년중 4회 분납(대금비 별도)으로 수할하고 편안한 지불이 불사를 돕습니다.

### ■수작업 수량 한계로 접수순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도록 업장소멸 법륜대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소비용으로 중생불사 동참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특별 하듯 한분 한분 5,000원이 일년 6,000만원으로 사찰경제 기반이 되는 법륜대입니다.



덕유산 우리 숲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경남 거창군 고계면 개령리 1156-4 달마사